

우리 이번 시간은 13강이에요.

단어의 의미 관계하고 담화 파트하고 같이 드렸어요.

같이 볼 건데 문제의 수가 많죠?

의미 관계 35문제에 담화 10문제로 구성을 했는데

다 안 봐요.

왜냐하면 어휘죠.

이 어휘는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해줘야 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반의어 관계 물어보는 거고

문맥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A, 김장독을 묻다의 반대는 뭐가 됩니까?

김장독을 파내다.

김장독을 들춰요? 치마도 아니고 살짝 들어 올리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안에서 올리는 겁니다.

캐내다? 발굴합니까?

김장독 묻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기인가 하면서

캐내고 발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휘의 반의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휘 습관.

그리고 문장에서 그 어휘를 쉽게 넘기지 말고

이런 문맥에서 쓰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공부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B는 어쨌든 1번, 5번 지대로 연결하시면 되겠고

안경을 빼다, 안경을 벗다.

여기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경을 벗다가 조금 더 어울리죠?

그런데 렌즈에 김이 잔뜩 빠지다.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김이 거치다, 이렇게 가는 거죠.

2번 문제, 반의어 갑니다.

방을 언다의 반대.

방을 잃다, 아니죠?

방을 빼다.

새들었던 방을 빼다, 이렇게 나가야겠죠.

1, 2, 3번 중에 하나.

그다음에 사다의 반의어로 잃다를 지금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느냐,

샀다 자리에 잃다를 넣어보면 잃었다 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3번부터 가면 원한을 잃다, 재능을 잃다 안 되지.

인심을 잃다 딱 정확하죠? 1번.

이런 거 쉽잖아요.

3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것의 의미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ㄱ에 해당하는 게 아닌 거 고르는 거거든요.

ㄱ에 일 사 자예요.

일 사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 사실 현상 판단 심정

A, B, C, D 잡아주고 정답 골랐으면 나머지 아닌 답들.

A, B, C, D 중에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한 번씩 선택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하고 듣도록 합시다.

했으면 한번 확인해볼게요.

정답은 1번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가 산 것은 하면

이것은 물의 개념이고 물건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2번 어디에 속할까요?

괴로운 심정에 해당합니다, D.

다음요, 얼음이 언 것.

이거는 B, 현상과 관련된 거겠죠?

다음, 네가 옳다고 하는 것.

판단의 개념이죠? C.

다음요.

내가 찾아온 것.

사실은 언제? 3일 전.

A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뒤집어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형태인데

제한이 있는 걸 고르는 거니까 1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재판은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이라는 써도

공정성과 정확성이 목숨이다,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바꿔봤더니 어울리고 5번 문제 갑니다.

비슷하다의 유의어에 한자어들이 쪽 주어졌고

혹시 여러분, 모른다면 뜻풀이가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이것도 뜻풀이 보고 넣어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장 형태를 내가 써봤느냐에 대한 언어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문장에 능력에 상당한 대우가 맞아요.

풀이에 나와 있죠?

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500만 원대 정도를 벌었다.

그러면 그게 능력의 상당한 대우를 받는 거겠죠?

다음, 그는 식성이 아버지와 흡사하다.

다음, 태풍 피해 현장은 전장터를 방불케 했다가 맞습니다.

같다고 느끼게 하다.

그의 얼굴 생김새는 자기 아버지와 매우 유사하다.

이게 나옵니다.

정답은 2번.

6번 문제 잘 보자고요.

ㄱ, ㄴ에 해당하는 사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ㄱ은 하위어.

ㄱ부터 골라볼게요.

1번 안 되죠?

2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라는 단어에 하위어로 여러 바다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동해죠.

3번, 팬찮아요.

바람 중에도 여러 바람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높새바람, 하위요.

나무 중에 소나무, 하위요.

황금중에 보물, 아니죠.

뒤집혀 있죠.

보물에 하위어가 황금입니다.

ㄱ이 맞는 건 2, 3, 4예요.

다음, ㄴ 주변적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게 사전적 의미에서 중심적 의미는 첫 번째.

우리가 사실 이렇게 단어의 의미 관계 우리 이 파트에서는

크게 두 부류예요.

좀 옛날 형태로 많이 나왔던 거는 주로 유의어, 동음이의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다면

한 10년 안쪽부터는 계속 사전 활용하기 문제로 많이 바뀌어왔어요.

그래서 사전 활용하기가 뒤쪽으로 다 포진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구성은 좀 예스러운 느낌이긴 하지만

관계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전을 봤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중심적 의미, 개념적 의미예요.

모두 개념적 의미입니다.

사전 개념적 의미인데 사전에 나오는 첫 번째의 의미가 중심적 의미.

그 2, 3, 4, 5, 6.

이렇게 쪽 내려가면 그게 주변적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2번에 바다.

바다가 육지라면.

우리가 바다를 사전에 찾는다면

물론 가득 차 있는 그 공간 개념이 나올 텐데,

사전 뜻풀이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선생님이 일일이 외우진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직감하고 있잖아요.

분명 이게 공간과 관련된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바다가 육지라면 그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그런데 3번, 바람.

wind가 기본적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찾아왔냐.

높새바람 불어서 찾아온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답은 3번이 답이 된다.

ㄴ이 뭐가? 좀 주변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4번에 나무.

오래된 나무, 집.

그러면 나무로 만들어진 집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적 의미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요.

8번 문제 넘어갑니다.

9번 문제도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10번 한번 볼까요?

10번에 빠지다의 의미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빠지다 1과 빠지다 2가 있어요.

빠지다 1을 보게 되면 ...에, ...에서, ...에, ...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건 사전 활용하기 쪽에서도

이런 문제 구성에 정보가 주어질 텐데

1번에 보면, 지금 이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자릿수가 걸려요.

이 안에 자릿수가 걸려들어 가는데

1번에 이 사이에 보게 되면 ...에, ...에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에, ...에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냐, 애나 애를 쓰라는 이야기죠.

둘 다 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애나 애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건 또 어떤 구성이에요?

애나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른 표시를 했을까, 라고 한다면

기능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지금 도착점.

어디 어디에 주다, 누구누구에게 주다, 라고 했을 때

도착점의 느낌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는 건데

애는 어디에 가다, 어디에서 오다.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출발점,

애는 도착점이라는 측면에서 뜻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애와 애를 둘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쉽표가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써야 되고

쉽표가 없다면 둘 다 써야 된다는 점으로

쉽표가 있으면 부사어나 목적어가 필요하지만

쉽표가 없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두 자리.

자릿수가 주어 말고도 또 두 자리가 더 있으니까

세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거죠.

누가 무엇을 어디에, 이렇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쉽표나 빗금이 있냐 없냐가

자릿수가 달라지는 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돼요.

1번에 보게 되면 빠지다 1과 빠지다 2는 완전 달라요.

빠지다 1은 기본적으로 때나 빗갈 따위가 씻기거나 없어지다의 뜻.

그다음에 빠지다 2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러면 뭐라고 한다?

같은 소리는 나지만 뜻이 다른 거.

동음이의어 관계라고 하죠.

다음 2번에 빠지다 1-1,

때, 빗갈 따위가 씻기거나 없어지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빨아도 얼룩이 지지 않는다에서의 지다와 유사한 의미가 되는 거죠.

빠지다 1-2, 남보다 모자라다의 의미로 쓰인대요.

예문 볼까요?

내 실력은 다른 경쟁자들에게 빠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모자라지 않는다.

그들에 비해 모자라지 않는다, 좋죠?

4번 보겠습니다.

빠지다 2의 ㄱ과 ㄴ을 보게 되면 없음의 의미가 있다.

곤란한 상태에 놓이다.

잠이나 혼수상태에 들다.

기나긴 잠에 들었다.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빠지다 2에 ㄴ, 잠에 들다니까 반의어로 잠에서 깨다가 나오겠군요.

11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4번이 답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고 할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이런 걸 가지고 4번은 역시나 맞아 하고 넘어갔다면

제대로 안 봤다는 이야기죠, 문제 구성 자체를.

쓰다와 달다는 무슨 관계?

서로 간의 반의 관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중심의 어휘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입다가 나왔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쓰다나 달다를 입맛의 개념.

즉 미각의 의미로 써, 달아, 라고 한다는 걸 반의로 보고.

그리고 그게 반의입니까?

쓰다의 반대는 무조건 달다가 나오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단 게 서로 간에 대척점에 놓인다고요?

신 건? 짠 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 단짠단짠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냥 달콤한 거보다 단짠단짠이 맛있거든.

그러니까 짠 게 살짝살짝 들어가 줘야지만 단 것도 부각되고

그러면 짠 것도 좋은 거잖아.

그러면 쓴 것이 안 좋은 거니까

선생님은 쓴 커피도 좋던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사실.

미각 개념은 서로 반의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난 쓴 건 싫고 단 건 좋고 좋아, 반의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애는 또 미각도 아니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입다, 라고 하는 단어가 중심에 놓여있고

이 도식된 표를 보니까

입다의 하위어들로 쓰다와 달다가 걸려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다는 쓰다, 메다, 두르다, 끼다, 달다.

머리에 모자 같은 경우는 쓰는 거고 팔에 끼는 거는 끼는 거고

그다음에 스카프 두르는 거고 가방은 메는 거고.

그다음에 달다는 브로치 같은 거.

그러니까 착용하다의 개념으로의 어휘들을 주변에 다 봤어요.

그러면 이때는 달다와 쓰다는 서로 간의 아무 관계가 아닌 거죠.

그게 무슨 반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답이 4번이었어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재미있어요.

기본적으로 1번에 중심적 의미가 아닌 주변적 의미.

즉 확장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걸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1번에 책만 파다.

우리가 땅을 파는 게 기본 의미겠죠?

그런데 책을 파다.

거기에 파고들다, 집중하다, 시간을 더 투여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니까 확장 의미고요.

덜다, 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의미가 반영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중심적 의미라고 하는 건 구체성을 띠고 있는.

실체가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쓰이는 것이고

추상적 의미로 반영이 되면 그게 다 주변적 의미로 가버려요.

그런데 3번에 보면 이를 갈다, 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의미,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는 중심적 의미로 보셔야 되겠고요.

4번에 먹다는 내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음식 같은 걸

섭취하다의 뜻이 기본 의미겠지만 한번 먹은 마음.

그러면 마음을 먹다, 라는 건 역시나 추상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자르다, 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거지만

부탁을 자르다 이러면 거절하다의 의미로 역시나 확장 의미가 됩니다.

13번에 별표를 치시고 이 문제 괜찮아요.

이 문제가 참 좋은데 보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 구조가 다름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예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기 이야기하죠?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쓰이는 구조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놓다는 무엇에, 무엇을 놓다의 구조로 쓰이느냐.

무엇을 놓다의 구조로 쓰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두다의 의미.

즉 책상에 공책을 놓다, 라고 하면 두다의 의미지만

후자는 무엇을 놓다.

풀다의 뜻.

즉 뱀을 놓았다.

농장에 뱀을 놓았다.

이러면 뱀을 풀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장 성분이 수정되어야 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1번 보겠습니다.

위에 문장인 밝다예요.

이 밝다가 위에서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밝다일 텐데

자릿수가 뭐가 필요하죠?

누가 무엇에 밝다가 필요해요.

주어와 부사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 우리 형은 밝다 이게 아니라

우리 형은 세상 물정에 밝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애는 두 자리.

누구, 누가, 무엇에 밝다.

지리에 밝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밑에 거는 주어만 있으면 돼요.

달이 밝다예요.

그러면 애는 뭐로 쓰인 거예요?

애도 형용사로 쓰였어요.

애도 형용사로 쓰였는데 상태성이니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주어만 필요한 거.

자릿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자릿수가 달라지면서 뜻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장에 달이 밝다가 기본 의미겠죠.

그런데 위에 누가 어디에 밝다, 라고 하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주변적 의미로 확장이 된 거죠?

2번 가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기본 의미가 될까? 위에 거.

이동성을 이야기하는 가다가 기본 의미겠죠.

그러면 애는 누가 어디에 가다가 필요해요.

주어와 부사어가 필요해.

그런데 밑에 있는 거 그 설명은 수궁이 가다, 라고 할 때는

무엇이 무엇이 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만 있으면 되는 자릿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요.

따라서 2번에 가다, 라는 것도 이해가 되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동성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릿수가 달라지면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요.

다음 3번에 애는 둘 다 중심적 의미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깨지다, 라고 하는 단어는 좀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가 깨지다, 이렇게 쓰일 거예요.

그런데 3번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 팀은 상대팀에 깨졌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깨지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누가 어디에 깨지다, 누가 어디에게 깨지다.

이게 필요합니다.

주어와 부사어가 필요해요.

그런데 밑에는 무엇이 깨지다, 둘 사이.

둘 사이의 약속이 깨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한 자리만 나온 거고

그러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지다의 개념.

좀 많이 처참하게 지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밑에 있는 예문 같은 경우는 약속이 깨졌다, 라고 하는 건 취소되다라든지 이런 의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달랐죠.

자릿수가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다음 4번, 간접하다.

위에 예문 몇 자리 필요하죠?

철수는 남의 일에 간접하다.

주어 ~일에, 부사어 간접하다.

밑에 거는요?

이 집안에는 딸의 행동을 간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문장에서의 간접하다 어떻게 풀이 됩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딸의 행동에 간접하다.

그러면 뭐예요? 주어와 부사어가 필요하죠, 역시나.

그래서 여기서의 간접하다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중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어와 부사어의 자릿수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위에 거 아래 거.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5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가 무엇에 기울이다 안 돼요.

여기 주의를이라는 거 없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기울이다인데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다.

주어는 지금 문장상 빠져 있지만 넣어줘야 되겠죠?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기울이다, 아니요.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이다, 아니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다.

주어, 부사어, 목적어 다 필요하죠, 세 자릿 수.

밑에 커피잔을 기울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커피잔을 기울이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주어와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의미, 중심적 의미로 쓰이는 게 밑에 거.

그리고 위에 게 주의를 기울이다 같은 게 추상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적 의미로 볼 수 있겠죠.

13번 문제가 좀 복잡다단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14번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좀 대충 애인가 하는 식으로 풀었다면 방법론이 잘못된 거야.

보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이 지금 7개가 있어요.

7개 괄호 친 듣다가 국어사전 밑에 두 번째 표에 있는

ㄱ, ㄴ, ㄷ 중 하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7개의 예문 중에

ㄱ으로 쓰인 건 몇 개가 있죠?

그리고 ㄴ으로 쓰인 건 몇 개가 있죠?

그러면 ㄱ과 ㄴ으로 쓰인 게 아닌 나머지가 있겠군요.

그것이 바로 ㄷ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시 멈추고 ㄱ의 의미로 쓰인 걸 찾고

ㄴ의 의미로 쓰인 걸 찾아봅시다.

했나요?

예문 보겠습니다.

먼저 ㄱ으로 쓰인 예문은 뭐가 있냐, 네 번째 예문.

우리 ㄱ은 감각 기관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리다였어요.

네 번째 예문은 핵심만 잡을게요.

목소리를 듣고예요.

그다음 여섯 번째 예문, 소리도 듣고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 소리야.

목소리, 벌레 소리.

그래서 이게 바로 ㄱ에 해당해.

감각 기관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리다.

그다음 ㄴ, 일정한 내용을 가진 말을 전달받다.

첫 번째 예문, 소문을 듣다.

그거 소문이 소리로 보는 게 아니라

소문이라는 개념의 말을 전달받는 거죠.

그래서 ㄴ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예문, 이야기는 성림이도 들었대.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역시나 이야기.

그러면 말은 전달받은 겁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음, 다섯 번째 예문.

역시나 이야기를 순천양반이 자세히 듣고니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ㄴ에 해당하는 것도 3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예문과 마지막 예문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 예문, 그는 내 말을 완전히 농담으로 듣고 있었다.

다섯 번째 예문, 바보같이 그까지 소리를 고깝게 듣고 그래.

농담으로 들었다, 고깝게 들었다 어떤 분위기가 있죠?

뭘니까?

그렇게 여기다,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개념이죠.

정답은 4번.

그래서 남은 두 개의 예문이 어떠한 풀이가 필요한지

그 두 개의 공통점.

의미상 유사점을 골라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ㄷ을 찾기 위해서는 ㄱ, ㄴ을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이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요.

15번은 정답이 좀 말도 안 되게 쉽죠?

그다음에 16번의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이 듣다, 라고 하는 단어가

동음이의어로 지금 두 개를 분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념 아니에요?

지금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꼭 사전상에 있는 사전적 정의를 머릿속에 박아넣어야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뒤양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예문은 안으로 들다.

즉 바깥 아닌 공간에서 그러한 공간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애는 아래에서 위, 리프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ㄱ, 감기가 들다.

건강했던 상태에서 감기라는 범위로 들어온 거예요.

다음, 가방을 들다.

단풍이 들다.

아니었던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

고개를 들다, 아래에서 위로.

반기를 들다.

반기가 뭐야?

싸우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깃발을 내세우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인 거죠.

그래서 대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죠?

보험을 들다.

보험 안 들었던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

가입하다의 개념.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고요.

18번이 함정을 많이 삼아주고,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보면 ㄱ하고 ㄴ이 되게 비슷비슷해 보여.

ㄱ에 보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물에 값이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

ㄴ이 일정한 숫자나 표식을 적어넣다.

기재하다가 담겨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ㄱ의 경우.

가격을 매겼다.

이렇게 해서 매긴 거 아니에요?

공책에도 아니야,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떻게 쓰인 거야?

그냥 등급대로라고 했으니까

ㄱ에 해당하는 등수 따위를 정하는 그게 적절했고요.

그래서 지금 ㄱ 설명에 맞죠.

높은 관세를 매겼다는 사물의 값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3번에 보게 되면, 신체 등급을 매겼다.

이것도 역시 등수 따위라고 보셔야 되겠고

ㄱ으로 가줘야 되겠고요.

4번이나 5번은 일련번호를 매겨 장부.

그러면 장부에 매겼다는 거고요.

다음에 응모작에 매긴 점수를 합하여 대상을 결정.

그러면 점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값이나 사물의 값이 아니에요.

점수예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매겼고 응모작에 숫자를 매겼다고요.

85점, 90점 매겼다고.

그 점수를 합했다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헛갈리기 쉬운데

왜냐하면 대상 결정하기 위해서는 등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대상 결정하는 차원이고 응모작에 매긴이라는

그 문장의 쓰임, 매기다, 라는 건 ㄴ으로 쓰인 건 분명하다는 거죠.

적어넣다의 개념으로 헛갈리게 문제를 줬네요.

그리고 19번의 경우에는 이 개념을 기억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반의어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는 상보 반의어, 두 번째는 등급 반의어 이겁니다.

두 개는 딱 대척점에 놓일 수 있어요.

이건 뭘니까?

중간항이 없는 거.

애는 중간항이 있는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항이 없기 때문에

애를 부정하면 애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애는 중간항이 있기 때문에 애를 부정한다고

무조건 애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뜨겁다와 차갑다는 뜨겁지 않아, 라고 해서

무조건 차가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미지근하거나 시원할 수도 있는 거죠.

남자, 여자.

남자가 아니야.

그러면 여자겠죠.

중간 성별은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보 반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관계 반의어, 반향 반의어.

이런 거 나오거든요.

다 같은 말이야.

아마 애가 더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방향 반의어가 더 많이 쓰일 텐데.

대칭 반의어, 이런 말도 쓰이고요.

그래서 지금 口과 같은 경우에는

이 口이 위에 있는 거랑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쪽이 없으면 한쪽에 놓일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형이다.

누가 있어야지만 형이죠?

동생이 있어야지만 형이죠.

동생이 없으면 내가 형이 될 수가 없어.

부모, 자식이 있어야 부모의 개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간의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상황.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 없는 관계, 알겠죠?

가다가 있으면 그 반대 방향에서는 오다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반의어가 만들어지는 걸 관계 반의어.

동, 기준이 뭐겠어요?

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동성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위치, 또는 서로 간의 관계성.

이런 거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관계 반의어가 됩니다.

1번에 보게 되면, ㄱ 두 단어가

공통 의미 요소만 가지고 있어도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공통 의미 관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설명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공통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자질과 관련된 문제들도 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할아버지의 반의어가 뭐야?

그러면 우리는 할머니,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이런 식인 거죠.

여기에 있는 +남.

기준이 꼭 남성일 필요는 없어요.

-여성,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남성이다 그러면 할머니는 -남성이예요.

그런데 +연로.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연로.

이렇게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 자질이란 건 만들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자질이 다 공통적이어야 돼.

이런 거 다 공통적이어야 돼.

그러나 하나만 차이가 나?

이러면 반의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 할아버지 손녀, 이러면 반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녀는 -남성이면 -연로가 어울려요?

그러면 의미 자질 차이가 두 개 이상이 나버리면

그러면 서로 간의 반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공통 의미 요소가 많다고 해서

반의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2번, 손녀와 할아버지.

여기 나오죠.

손녀와 할아버지는 연령이라는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서로 반의 관계다?

연령만 차이 납니까? 성별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고.

다음 3번, 선배가 아닌 사람은 모두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와 후배는 상보 반의어다.

아니죠, 무슨 반의어? 관계 반의어예요.

선배가 아니면 모두 후배가 아니라

아예 나는 선배고 후배고 아닐 수 있다고요.

나는 혼자 1인 기업이야.

학교 안 다녀.

내가 선배인 적도 없고 후배인 적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관계가 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의 경우에는 길다를 부정한 길지 않다는

길다의 반의어인 짧다와 똑같은 의미다.

그렇진 않죠.

길지 않다는 짧지도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한 길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답은 5번, 가다와 오다는 서로 간의 상대적인 관계.

방향 반의어에 속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쪽쪽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다가 우리가 어느 문제로 갈 거냐면,

사전 활용하기 문제 쪽으로 가봅시다.

그 전에 24번 정도만 하나 풀어볼까요?

재미난 문제가 하나 있어요.

23번도 재미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4번 답지가 정답이잖아요.

무거운 침묵.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기에 나온 것처럼

무거운 침묵을 가벼운 침묵 했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것처럼

뜨거운 눈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감정이 북받쳐서 나오는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쓸 때 차가운 눈물, 이런 거 씩니까? 안 쓰죠.

새파란 젊음이, 이거를 셋노란 젊음이, 새파란 할아버지.

이런 거 씩니까? 안 쓰죠.

그런 맥락이고요.

24번의 경우에는 의미 쏠림이라는 거.

이런 거는 미리 문법 지식을 갖고 푸는 거 아니야.

23번이나 24번은 문법 지식을 갖고 푸는 게 아니라

보기 잘 읽고 잘 적용하시는 문제입니다.

ㄱ에 예문 봤더니 시치미를 떼다.

그러면 여기에 시치미들과 떼다, 라고 하는

두 개의 A와 B의 요소가 있을 때

개를 가지고 너 왜 이렇게 시치미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A 쪽에 의미 쏠림이 생긴 것이다.

이런 방식이었죠?

뒷북을 치다도 역시 뒷북을 A, 치사를 B라고 했을 때

너 왜 이렇게 뒷북이야, 라고 하면 A로 의미 쏠림이 이루어졌다.

다음, 바가지를 씌우다, 바가지를 굶다.

모두 씌우다, 굶다를 빼버리고, 바가지냐.

너 왜 바가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시 A의 의미 쏠림.

르을 볼게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다.

이러면 굉장히 문장이 긴데

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다를 더 줄여 쓰면

오리발을 내밀다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닭 잡아먹고가 A, 오리발을 내밀다가 B라면

B의 의미 풀림이 이루어졌는데 이 오리발을 내밀다를 또 줄이면

너 왜 이렇게 오리발이니, 이렇게 쓰더라는 이야기죠.

이때는 A로 의미 풀림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ㄹ에 무릎을 치다의 경우에는 너 왜 이렇게 무릎이니?

나 오늘 무릎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애는 의미 풀림을 이룰 수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봤더니

정답은 2번이 답임을 알 수가 있어요.

ㄴ하고 ㄹ을 봤을 때 관용 표현에 쓰인 서술어를 보면

의미 풀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ㄴ의 뒷북을 치다에서 서술어 치다나

ㄹ에 무릎을 치다에 서술어의 치다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ㄴ은 의미 풀림이 있고 ㄹ은 의미 풀림이 없다는 것은

치다, 라고 하는 어휘가 의미 풀림을 만든다

또는 만들지 않는다는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활용하기 문제로 들어갑니다.

25번 문제를 보는데요.

25번, 다음은 치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요.

이건 우리가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되게 지겹습니다.

시간도 꽤 걸려요.

왔다 갔다 찾아야 되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많이 풀어보면 돼요.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면 돼요.

1번에 치다 1과 2는 별개의 표제어.

많이 나오는 답지예요.

치다 1, 치다 2 표제어, 다르다.

알겠죠?

그러면 애는 무슨 관계? 동음이의어가 된다는 이야기죠.

같은 소리지만 뜻은 완전히 다른.

즉 치다1와 치다 2는 서로 간의 의미 관계가,

의미적 유사성이 없어요.

다음 2번 갑니다.

치다 1의 ㄱ, 예문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뜻풀이 보셔야 됩니다.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계 닿거나 부딪게 하다.

날아오는 공을 치다.

유의어로 날아오는 공을 때리다.

괜찮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다, 괜찮죠?

그래서 2번 설명 맞습니다.

3번, 치다 1에 속담을 봤더니 치러갔다가 맞기도 예사.

이런 속담이었어요.

그러면 치러갔다가 반대로 맞았다는 이야기니까

치다와 맞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속담이다.

다음에 4번, 치다 2에 ㄱ을 보니

가축이나 가금을 기르다, 라고 했거든요.

가금은 조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안 되겠네.

4번처럼 아이를 기르다의 의미를 아이를 치다.

이렇게 쓸 수는 없겠구나.

5번에 보면, ㄴ에 용례를 잡았는데

뜻풀이가 식물이 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

나무가 가지를 치다가 가지가 많이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예문으로 농부가 낫으로 잔가지를 쳐냈다는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다, 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지금 애는 예문이 잘못 연결돼 있어요.

26번 가봅시다.

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요즘에는 종이 사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했더니 의존 명사도 나와

또 대명사 관형사로 쓰이는 이도 나와

수사 관형사로 쓰이는 이도 나와.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이 1, 2, 3 서로 간의

의미적 유사성이 있다, 없다? 없다.

동음이의어 관계다.

그다음 1번에 저 모자 쓴 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띄어 썼죠?

그러면 이때는 사람을 뜻하는 의존 명사 맞습니까?

1번 맞아요.

2번 갑니다.

이2나 이3의 경우에는 이1과 다르게 뜻이 하위어로 1, 2.

이런 게 두 개씩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다의어.

그에 반해 이1의 경우에 의존명사.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거는 단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설명 다의어 맞습니다, 이2는요.

다음 3번, 이1-1용례, 이2-1용례를 보면

이2는 조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 이2는 1번이 대명사, 2번이 관형사.

이3은 1번이 수사, 2번이 관형사예요.

여러분, 대명사나 수사는 체언에 속하고 체언은 조사랑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관형사는 안 되잖아요.

결국 조사의 결합 여부가 품사를 결정지을 수 있다.

4번 갑니다.

이 km 걸어라, 라고 할 때의 이는 띄어 썼어요.

km를 그 뒤에 단위로 보게 됩니다.

단위 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띄고 km로 쓰였을 때 이는 뭐가 되는 거야?

수관형사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애는 이3 1-1은 수사잖아요.

수관형사가 아니라.

잘못 연결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27번, 네 개의 단어를 표제어에서 찾았어요.

우연이라는 명사, 반의어는 필연이래요.

다음, 우연적이라는 단어.

그런데 우연적이라는 단어는 관형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나 보네요?

우연하다, 형용사.

우연히, 부사.

그래서 네 개의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1번 해석해봅니다.

우연의 뜻풀이와 반의어를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명사인데

우연적이라는 단어도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라는 뜻.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품사적 기능만 다른 거죠?

그러면 반의어도 역시 우연의 반대가 필연이듯이 우연적이에 반대여도

필연적이겠거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번 문제없습니다.

2번, 우연적에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면

그들의 만남은 우연적이었다에서 그때의 우연적은 관형사다.

땡.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연적이었다에 단어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단어, 품사를 물어본다면 명사와 조사만 꼬집어내면 되는 거죠.

서술격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격 조사의 활용 부분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우연적이어서, 우연적일지라도, 우연적일수록.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다 계열로 활용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서술격 조사 이다를 잘 발견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이때 이 우연적은 관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형사이려면 띄어서 명사 꾸며줘야죠.

예를 들면 우연적 띄고 만남.

이러면 관형사야.

그런데 애는 조사.

서술격 조사인 이다와 결합돼 있으므로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우연하다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

형용사로 쓰였고 공교롭다.

저절로 뜻하지 아니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연하다의 용례로 우연한 계기.

우연한 계기라고 했을 때 우연한은 관형사 아니죠, 여러분?

관형어로 쓰였지만, 관형사는 아니죠.

우연하다의 활용형이죠.

그래서 애는 뭐다? 품사는 형용사가 맞습니다.

다음 4번, 우연하다에 뜻풀이나 용례.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우연이라는 단어에서

넘어왔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우연이라는 단어 명사에 하다, 라고 하는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접사죠, 접미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겠구나 4번 확인되죠?

그러면 애는 복합어.

왜? 애는 복합어 중에는 합성어, 파생어가 있는데

이 하다가 접미사니까 파생어가 되는 거죠.

5번에 우연하다와 우연히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면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바꿔도

문제가 없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풀었는데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우연찮다, 라는 단어도 또 있어요.

우연하다랑 우연찮다랑 무슨 차이예요, 이럴 수 있는데

별 차이 없어요.

우연찮다는 뜻풀이가 꼭 우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도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예문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잊고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쓴다면 나는 그토록 찾았던

고등학교 동창을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만났다.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나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연찮다는 건 우연한 건

아니나, 라는 걸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만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좀 갑작스러운 그런 만남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예문 이렇게 썼잖아요.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보긴 했다는 이야기죠.

비슷한 애가 있었으면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그토록 찾았던 친구를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그러면 거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의도는 또 안 했어.

이런 예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도 있어요.

형용사로.

그다음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ㄱ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 이거 동사냐 형용사냐를 판단할 때

우리가 용언에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공부했잖아요.

그걸 적용하는 것도 물론 맞긴 하겠지만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사전 풀이니까

사전에 서술어 용언 쪽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이런 정보에 을이 껴 있어.

동사죠.

형용사에 을이 나오는 수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자릿수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에, ~을 다 버리세요.

그냥 다 형용사야.

그런데 여기서도 일단 한 자리면 이렇게 그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주어만 있는 상황이면

동사일 수도 있는 형용사일 수 있는데 적어도 1과 2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로마자로 되어있는 1과 2를 봤는데 2가 동사로 써 있어.

1은 ㄱ에 비어져있고.

그러면 형용사야.

왜냐하면 만약에 둘 다 동사였잖아요.

그러면 그르다 0-1바로 옆에 그냥 동사라고 써 있어야 돼.

뭉어서.

그런데 이렇게 로마자로 되어있는 1과 2가 달리 잡혀있기 때문에
둘을 나눠서 품사를 적어주는 거거든요.

1번은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이거를 행실이 그르다가 뜻풀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

사전적인 그 틀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르다 3한 번 봐 봐.

바르다 3의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는 예문 1, 2, 3, 4가

전부 다 형용사니까 묶어서 형용사.

이렇게 써있는 거잖아요.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ㄴ에 들어갈 문형 정보가 흔히 현재 시제로 쓰여,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ㄴ에 예문을 재빨리 봤더니

대세는 벌써 그른지 오래다.

현재 맞군요.

아, 아니네, 그르다죠?

어쨌든 ㄴ만 나왔습니다.

그르+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르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예를 들어 예쁘다, 라는 형용사를 들면 애가 시간성을 잡을 때

일단 는은 못 붙이는 거 아시죠?

그러면 ㄴ이나 던이나 르을 지금 쓸 수 있어요.

과거죠, 미래죠.

예쁜, 현재죠.

따라서 여기에 그른지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예요.

그른지라고 하면 이게 현재적인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것이 문제가 돼.

이번 일도 이미 끝났다.

과거 선어말 어미인 었이랑 결합돼 있죠.

그르다, 그르었다.

그러면 애는 현재 시제랑 결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잖아.

정답은 2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바르다 3에 ㄷ에 뭐가 들어갈까?

예문, 묻는 말에 바르게 대답해.

이걸 3번에 뜻풀이와 연결했더니 묻는 말에.

그 사실이라고 본다면 어긋남 없이 대답해, 좋겠죠?

그다음에 옳다의 반의어로 그르다 1.

뜻풀이가 1이 연결되는 거.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한 면이 있다랑 딱 반대입니다.

다음 5번에 차라리 더 낫다의 예문으로

변명하느니 말을 앓는 게 차라리 더 낫다의 의미로 쓰인 거죠?

29번 좀 재미있네요.

이런 문제 구성이 또 앞으로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남북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통일도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주목해볼 만 해요.

그래서 북한 사전 풀이와 남한의 사전 풀이를 갖다 놓고

비교 분석해주는 문제 구성입니다.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에서는 (가)와 달리 뿐을 다른 말에 기대 쓰고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로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선생님이 자립 형태소.

띄어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북한 사전에 뿐은 어떠한 경우에도 띄어 쓰지 않고

다 붙여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고요.

30번도 별표 치세요.

이 문제를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그 당시에.

좀 옛날 문제죠, 2007년도 건데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왜 틀렸는가를 지금 보면, 구성은 이래요.

두 가지를 다 챙기셔야 돼요.

뭐냐면, 뜻풀이가 일단 맞아야 돼요.

두 번째, 뜻풀이가 맞다면 자릿수가 맞아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뜻풀이가 맞는지 가지고 지워내 볼게요.

1번, 깔다.

젖혀서 벌리다.

예문이 이거죠?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젖혀서 벌렸다.

여러분, 깔다, 라는 건 벌리는 행위는 있겠지만

그거를 봐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만 한다고 이게 까는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젖혀서 벌렸어요, 위로.

그러면 이게 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려놔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뜻풀이가 잘못됐어요.

2번 가볼게요.

스쳤대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뜻풀이 뭐로 돼 있어요?

세계 달거나 마주치다.

스쳤답니까?

아니죠.

뜻풀이가 잘못됐어요.

다음 3번, 말기다.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가방을 말기다.

좋아요.

뜻풀이 일단 패스.

통과됐습니다.

4번, 푸다.

밥을 찌대요.

어떤 것을 속에서 떠내다.

밥 속에서 밥을 떠낸 거죠?

뜻풀이 좋아요.

5번에 여기다.

그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이때 이 천직이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가 있죠.

천한 직업으로 여겼는지 하늘이 준 직업으로 여겼는지

그 의미가 완전 극과 극일 텐데

아무튼 애는 중의성이 형성될 텐데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는 뜻풀이만 보면 됩니다.

여기다의 의미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보가 된 답지는 3, 4, 5번.

그런데 못 골랐어요.

왜 못 골라?

여기서 문제의 의도는 하나가 더 있다고.

자릿수.

그래서 지금 3, 4, 5번에 자릿수를 잘 판단해보세요.

예문을 보고 판단합니다.

3번에 맡기다는 몇 자리가 필요하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까지 다 필요해.

그런데 자릿수가 누가, 무엇을만 나와 있죠.

에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려요.

4번 갑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이, 무엇에서만 나와 있어.

즉 무엇을, 밥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

정답은 5번.

여기다. 누가, 누구를,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다.

자릿수 딱 떨어지죠?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것이고요.

다음은 쪽 넘어가서 34번입니다.

34번 문제.

34번 문제도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다 1과 하다 2에

단어 품사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다 1은 품사죠.

그런데 하다 2는 품사가 아니죠.

그런데 사전을 여러분이 보시면,

품사가 아닌 게 왜 사전에 등재되어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품사가 아닌데 등재되어있는 건 접사예요.

이 접사 정보는 접두사나 접미사에 대한 뜻풀이.

왜냐하면 애는 낚시용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뜻풀이는 사전에 제시하고

이러한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 쓰면 단어가 만들어져요, 라는

정보를 제시해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다 1의 경우에는 동사로 자리 잡은 거고

애는 그러면 동사, 품사가 있는 거예요.

하다 2는 단독으로는 절대 품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다 1을 보면 하다 앞에

붙임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조건 붙여야만 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단어를 봤더니 예를 들면

옷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건 애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즉 형태소가 나뉘는 것이고 이렇게 결합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최종 구성 요소를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러나 -하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붙여만 써야 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접두사처럼 예를 들면 맨이다 그러면 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단어.

맨을 보게 되면 관형사로 나와 있는 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으로 오세요, 라고 할 때 그때의 맨은 띄어서

맨 앞,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애는 아무 정보 없어요.

붙임표 없어요.

그런데 접두사로 쓰이는 맨의 경우에는 이게 달려있단 말이야.

맨입 할 때의 이런 거는 접두사.

이렇게 붙임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1볼게요.

하다 1-1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다.

동사로 쓰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3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의어 맞네요.

다음 2번 갑니다.

하다 1-2.

보조 동사로 쓰이는 거 이야기하죠?

애는 하다 1-1과 달리 혼자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뒤에 붙여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다 1-2의 경우에는

보조 동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보조 용언이에요.

본용언 없으면 보조 용언 혼자 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문들 보게 되면, 어떤 거 있습니까?

노래를 하게 하다, 숙제를 하게 하다, 청결하게 띄고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하다, 라고 하는 건

사동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용언 뒤에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2번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붙여, 라고 하는 부분이 부처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어.

그러면 예문들 봤더니 여기 지금 부르게 띄고 하다인데

왜 붙여 쓰라고 했지?

2번이야, 하고 잘못 본 거지.

어디 붙여, 라고 써있어.

붙여라고 이야기했지.

즉 이 붙여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야?

본용언이 있고 거기 뒤에 써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붙여는 띄어 쓰지 말라는 이야기고.

다음 3번 가겠습니다.

하다 02는 앞 단어에 붙여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겠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애는 이때에 붙여는 붙여의 의미로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는 어떻게 됩니까?

접사이기 때문에 앞에 딱 붙여서 쓰는 거죠.

2번하고 3번이 똑같은 붙여, 이거는 출제자가 잘못된 거야, 사실은.

똑같은 붙여, 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거 이상한데?

그러나 제발 내려가 보자고요.

4번에 봤더니 하다 1-2의 용례로 새 옷을 한 번 했다.

어울렸어요.

그랬더니 5번, 물에 빠질 뻔 하다가 뻔하다는 하다 2-2.

하다 2-2는 뭐에 해당해?

여기 건강하다, 순수하다 명사 뒤에 붙여야 돼.

그런데 이 뻔은 의존 명사잖아요.

즉 체하다, 척하다, 듣하다와 어울리는 거죠.

4번이에요.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35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35번이 따끈따끈했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 좋아요.

그래서 사전은 수정이 됩니다.

어휘라고 하는 거는 의미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전도 개정하게 되는데

이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먼저 ㄱ의 경우에는 단어가 원래 다의였잖아.

1번부터 9번까지 있었던 굵다라는 단어가 10번으로 늘어났어.

왜냐하면 카드라고 하는 문물이 생겨나면서

결제하는 걸 카드로 굵다, 라는 말로 쓰게 됐거든.

그걸 뜻풀이에 넣어줬다는 겁니다.

즉 1번은 표제어에 뜻풀이가 추가되어서

단어의 중심적 의미는 수정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중심적 의미는 1번 의미를 이야기하니까.

1번 의미는 그대로 놔두고 주변적 의미가 하나가 늘어날 뿐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번의 경우에는 원래는 김밥이라고 발음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김밥과 김빡 둘 다 등재가 되어있어요.

즉 단어의 발음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표준 발음이 두 개가 된 겁니다.

다음에 3번, 내음이.

원래는 냄새의 방언이라고 명시되어있던 건데

그게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이는

향기로운 기운으로 바뀌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뜻풀이도 새롭게 얻어졌고 지위.

표준어의 지위를 얻었다는 거죠.

사전에 등재되어있으니까.

르의 경우에는 태양계에 대한 뜻풀이가

아홉 개의 행성이라는 그 뜻풀이에서 여덟 개 행성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적 정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명왕성은 태양계 아니야, 버려.

이러고 나서 바뀐 거죠.

그다음에 ㅁ에 보게 되면 표제어가 없었던 것.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재가 됐다는 건

신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등재가 된 겁니다.

담화에서는 열 문제 중에서 뭘 볼 거냐면요.

사실 담화도 역시 어렵지 않아요.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인용 발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을 인용 발화라고 하는데

책, 신문, 방송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말도 인용 발화다.

그런데 인용 발화는 대개 특수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일반 발화와 구분되어 쓰이지만, 간혹 일반 발화도

인용 발화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우리 인용이라는 거 직접인용, 간접인용, ~라고, ~고.

이런 거 붙여줘야 되는데

애는 일반 발화인데 인용 발화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답니다.

이래버리면 내가 그 풍습을 본 게 아닌 게 돼 버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걸 전달하는 거야.

그 나라의 풍습은 흥미롭답니다.

다음, 어렸을 때 저는 개구쟁이였답니다.

내 기억으로는 아니었나 봐.

그런데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걸 전달해.

간접 인용해주는 거, 어머니의 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인 것처럼.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안 나가봤겠죠.

그런데 기상 예보에서 이야기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알려줬다든지, 그랬대요.

다음 2번,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는

나 그거 안 탔어요.

그러니 몰랐던 거지만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던 정보를

~했답니다에서 알려줍니다.

이 ~했답니다는 사실 일반 발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용 발화처럼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1번의 경우 지금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답니다, 라는 건

자기 정서에 대한 인용 없이 서술한 거지

이거를 내가 인용한 것처럼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내 정서를 직접적으로 노출한 것뿐입니다.

3번 가볼게요.

보기에는 아저씨가 친척 관계와 친척 아닌 말에서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아닌 거를 골라내자, 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약간은 가족 관계를 지칭하는

어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건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1번에 아가씨라는 단어가 가족 관계에 쓰입니까?

쓰인다는 걸 알아야 1번이 패스가 되겠죠.

지금 보면 30대 남자가 20대 여자에게 아가씨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가족 관계에 쓰일 수 있는 말이나의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시집을 온 남편의 아내예요.

남편의 아내가 그 남편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아가씨, 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족 관계에 쓰이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2번, 병원에서 50대 간호사가 70대 남자에게 제가 할아버지.

이건 가족 관계에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도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어르신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3번, 골목길에서 이웃집 어른이 옆집 아이에게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아버지 어디 가셨니.

이때의 아버지는 일반적인 나이 든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청자를 고려하여 청자의 관계되는 아버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가족 관계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4번, 아주머니는 언제 씹니까?

어떤 관계냐면,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위로 들어왔습니다.

장가를 들어왔는데 그 자기 아내의 오빠가 있어.

그러면 자기 아내의 오빠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오빠가 결혼을 한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형님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느냐,

형수님 아니에요.

형수님은 내 형의 아내를 형수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상황은 내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불러주는데

그 오빠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느냐예요.

그래서 그 오빠의 아내를 아주머니, 라고 부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서는 모르는 여자에게 아주머니, 이렇게 썼던 거죠.

4번을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5번은 너무 쉽죠?

일상적인 형인데 대학교 관계에서도 형,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니까.

됐고요.

나머지는 되게 지시어와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명사, 관형사 부분에서도 많이 풀어봤었던 문제 구성이에요.

6번을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좀 복잡하게 구성을 잡아놨어요.

잘 보세요.

탐구 자료, 음미의 고모가 음미 집을 찾아왔다.

할머니: 어서 와라, 김 서방도 잘 지내지?

이때 김 서방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 고모의 남편을.

즉 할머니에게는 사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고모는 자기 딸이니까.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엄마, 그이도 잘 지내요.

그러면 여기에 그이가 누가 되는 거야?

남편, 자기 남편이죠.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네 아가씨.

아까 이야기했죠.

이 아가씨는 뭐인 거야?

여기 지금 이 고모라는 분은 바로 자기 아빠의 여동생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에게 시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누이는 위, 아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아가씨라고 불렀고요.

배고플 텐데 과일 좀 드세요.

고마워요, 언니.

음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고모.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응, 고모부는 다른 약속이 있어 못 왔어.

그러면 여기 ㄱ에 고모부는 누구야?

자기 고모부야? 고모의 고모부?

아니죠.

지금 음미가 아니에요, 고모부는 안 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어, 너의 고모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너의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

듣는 청자를 고려해서 고모부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답을 보면 우리는 2번이 답인 걸 알 수 있는데

ㄱ과 ㄷ을 봤을 때 청자는 같지만.

청자는 고모예요.

화자가 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화자 할머니, 엄마 다릅니다.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었다.

김 서방과 아가씨가 동일한 인물입니까?

전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8번 가봅시다.

마지막 문제 8번을 보도록 할 텐데

8번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1학년 문제로 많이 걸려있다가 3학년 문제로 걸려있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범위를 골라보라는 이야기죠.

우리라고 하는 건 말하는 화자는 기본으로 포함되어있어요.

그런데 청자를 포함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

그리고 청자를 포함 안 하고 있을 때의

우리도 또 범위가 다를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가봅시다.

수빈이가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건데 예쁘다.

그랬더니 고마워, 우리 엄마.

이거는 내 엄마지, 사실?

다음, 세은이.

너의 어머니 참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 사고 싶은데.

우리 셋 지금 사러 갈까?

수빈, 나경, 세은 모두죠.

그랬더니 미안해, 우리 집에 일이 있어.

그런데 이때의 우리는 나경이의 우리랑은 다르죠.

나경이의 우리 엄마는 나경의 엄마지만

수빈이의 우리 집은 수정입니다.

서로 달라요.

그랬더니 세은이가 그래? 할 수 없네.

우리끼리 가지, 뭐.

그러면 수빈이가 못 간다고 했으니까 나경이와 세은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경이나 그래 수빈아, 다음에는 꼭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러면 이 우리는 수빈, 나경, 세은을 다 합친 거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B하고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화에는 이렇게 좀 골라서 풀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는 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깔아놓은 단원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문 규정 나갈 겁니다.

한글 맞춤법하고 그다음에 그 외 발음법.

그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은

문제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묶어서 두 시간 동안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